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궤도 수정하나

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6개월 연장 결정
 JCC “‘청정과 공존’ 부합하는 신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막강 권한 주요 변수 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5조2180억원을 투자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면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수정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투자자와 투자자본의 적격성, 제주미래 비전 등을 검증하는 기구로 이들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다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보완(전면수정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지난달말에서 8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사)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JCC 관계자는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회의를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국내 여건에 맞게 수립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 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로 규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후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 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도개발사업심의위 심의 결과를 사업자 측에 통보하고 2021년 2월말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JCC 측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엄

격하게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기존 사업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면 ‘재검토’나 ‘부결’을 내릴 것이고 심의 통과시 관련 부서 검토가 이뤄지고 난 후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개발사업전문가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정제주 송악 선언 후속조치 3호’를 발표하면서 기존 사업계획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사업 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불허한다는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

고대리기자

제주지역 2월 소비자 물가 1.2% 상승 농축수산물 물가 14.1% 오르며 상승세 주도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 넘게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가 명절 수요가 겹쳐 14.1% 급등하는 등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6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1.3%)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품목성질별지수를 보면 농축수산물 물가 전년 대비 3.0%, 전년동월 대비 14.1%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0.7% 하락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동월 대비 1.7%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 전월 대비 등락폭목은 휘발유(4.2%), 경유(5.2), 풋고추(89.9), 사과(8.3), 달걀(13.8), 파(23.4), 미용료(2.2), 양파(19.5), 바나나(16.5), 국산 쇠고기(1.8), 배추(22.5), 공동주택관리비(0.8), 수입 쇠고기(1.9) 등은 상승했다.

반면 스낵과자(-3.7), 햄 및 베이컨(-3.5), 식용유(-11.3), 깻잎(-26.9), 상추(-16.2), 세탁세제(-3.3), 오이(-6.1), 중학생학원비(-0.4), 돼지고기(-0.5), 방송수신료(-1.4), 부침가루(-6.6), 참기름(-5.5) 등은 하락했다.

서비스와 관련해 집세는 전월 수준을 보였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0.3% 하락했다. 공공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동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스마트컬러푸드 플랫폼 서비스 개발 착수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2단계 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 ‘피부건강을 위한 스마트컬러푸드 플랫폼 서비스 개발’이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자원부는 20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2단계(2021~2022년)사업으로 ‘제주도의 피부건강을 위한 스마트컬러푸드 플랫폼 서비스 개발’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단계 사업으로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선정된 바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기업들을 연계한 지역 신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인 개인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3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R&D사업비는 8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기업의 의견 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 맞춤형 과제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 협력, 사업화 지원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 지원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2단계 사업 추진과 병행해 2023년 착수를 목표로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고도화를 위한 3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단계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3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용역 결과와 반영해 작성될 전망이다.

현단계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기준, 예산 등이 모든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3단계 사업에서는 클러스터 고도화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원체계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새봄 야생화들의 향연(饗宴) 시나브로 봄 기운이 완연하다. 내리쬐는 햇살은 따스하고 스치는 바람에도 포근한 기운이 묻어났다.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야생화들이 봄 기운 가득한 비를 머금으며 활짝 피어나 저마다의 자태를 자랑한다. 사진 위 왼쪽부터 별꽃, 새끼노루귀, 장말기꽃, 양장구채, 사진 아래는 큰개불알꽃, 개구리갈, 자주괴불주머니, 제비꽃. 사진=강희만기자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을 높인다

지난해 59.6% 기록... 도, 올해 61.4%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 추진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주벤처마루 건축물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교량 삼

오교, 서귀포 도순동 소재 교량 제3산록교 등 지난해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한 시설물 3개소 및 내진성능평가 이행 시설물 15개소 등 총 18개소다. 주요점검 사항은 ▷내진보강사업 대상 관리현황 ▷내진보강 정보관리

시스템 입력현황 확인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보강설계 적정성 검토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보강 발주기관과 시공사 등에서 제도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수범사례와 미흡한 사례는 발주기관, 시공사와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내진보강 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을 확보해 내진성능평가 용역 6개소(정수장 등 수도시설), 내진보강공사 4개소(건축물)를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61.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해 도내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 1109개소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536개소, 미적용된 곳은 573개소로, 제주도 내진율은 59.6%다. 강대리기자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